

## 뉴욕시의 도시농업, ‘옥상농장(rooftop farm)’

뉴욕시에서 건물 옥상은 뉴욕시 전체 면적의 약 11.5%를 차지하고 있는데, 최근 뉴욕시는 이를 ‘옥상농장(rooftop farm)’으로 활용하여 도시의 거주적합성을 제고함은 물론 도시생활의 쾌적함을 증가시키고 있다.

최근 도시농업, 도심 속 대체농장으로 각광받고 있는 루프탑 팜은 옥상정원, 야생식물 서식지, 빌딩 속 옥상 재배 등의 ‘녹색지붕(green roof)’사업으로 도심 속 오아시스를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다.

맨해튼, 퀸즈, 브루클린, 브롱스, 스타튼 아일랜드 등 5개 행정구(Borough)로 구성된 뉴욕시는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방법으로 루프탑 팜을 조성하여 농촌과 거리가 멀고 농사지을 땅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뉴욕시에 도시의 현실과 조화되는 도시농업을 창출하고 있다.

2010년 5월부터 뉴욕시 부르크클린과 퀸즈에 세계 최대 규모의 루프탑 팜을 운영하고 있는 ‘브루클린 그랜지(brooklyn grange)’는 루프탑 팜을 통해 매년 5만여 파운드의 유기농산물을 재배하고, 산란계와 상업용 양봉장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루프탑 팜에서 재배한 채소와 허브 등 유기농 생산물을 지역주민들에게 판매하거나 인근 레스토랑에 공급하고 있으며 각종 이벤트 및 교육 프로그램을 주최하여 녹색지붕 컨설팅 및 설치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부르크클린 그랜지보다 1년 앞선 2009년부터 루프탑에서 유기농 농작물

을 생산하고 이를 판매·공급하며, 제철 농산물 프로그램, 도시텃밭 가꾸기 등 다양한 지역사회 활동을 하고 있는 브루클린의 ‘이글스크리 루프탑 팜(Eagle Street Roof top Farm)’은 루프탑을 활용한 농장으로 뉴욕에서 가장 오래된 곳이다. 또한 맨해튼에 있는 ‘리버파크 팜 (riverpark farm)’은 공사가 중단된 홍물스런 복합단지 부지에 도심농장을 조성하고 인근에 레스토랑을 운영하여 신선하고 믿을 수 있는 채소를 요리재료로 사용하고 있다.

뉴욕시뿐만 아니라 2012년 한국의 대구농업기술센터에 조성된 LED 식물공장<sup>1)</sup>, 영국 런던의 ‘얼로트먼트 가든(Allotment garden)’<sup>2)</sup>, 독일의 클라인가르텐(Kleingarten)’<sup>3)</sup> 등은 루프탑 팜은 아니지만 도심 속 유휴부지, 자투리땅 등을 생산적으로 활용하고 친환경과 첨단기술을 결합하여 도시농업을 활성화한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017년 9월 12일

뉴욕주재관 강대훈

- 
- 1) 햇빛과 토양대신 LED조명과 배양액을 사용하여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함으로써 친환경과 첨단기술을 결합한 도시농업의 사례임.
  - 2) 도심속 유휴지나 매립지 등 공유지에 회원들을 모집하여 채소나 과일 등을 생산하는데, 런던에만 4만 개의 얼로트먼트 구획이 있다고 함.
  - 3) 소정원이란 의미로, 농사도 짓고 산책을 할 수 있는 도시녹지공간의 역할을 하는 시설인데, 독일에는 백만 개가 넘는 클라인가르텐이 조성되어 있음.